

# 외국어린이도 우리가 만든 책 읽는다

## 금성 '캠프토이북' 등 이동도서 수출 점차 활기... 다양한 품목개발이 성패좌우

책의해를 맞아 해외 출판사들과 저작권 계약을 끝내고 수출중인 아동출판물이 많아지고, 아동출판물에 대한 수출 상담이 울들어 부쩍 늘어나고 있어 국내 출판사들의 아동출판물의 해외시장 개척에 청신호를 던져주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국내 아동출판물의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동시에 국내 출판계의 위상이 세계적인 추세에 돌입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 국내 아동출판현황 반영하는 수출상담

우리나라가 세계저작권협약에 가입한 1987년도에 벨기에의 유명 출판그룹 드벡 비스멜사와 '에니메이션 세계명작'(전60권)의 불어판 저작권협약을 체결, 캐나다에 수출한 금성출판사는 이후 아동출판물의 세계시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각도로 수출진로를 모색했다고 한다.

최근 수출된 '캠프 토이북' 시리즈(전24권)는 금성출판사의 자회사인 KAMP에서 자체 기획 발행한 유아용(1~6세)출판물로서, 그림책과 지능개발용 장난감이 결합된 유아용 아이템이다. 금성출판사는 스페인의 우수한 출판사인 수세타와 '캠프 토이북' 스페인어판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여 올해 2월초 현지에서 발행하여 판매중이다. 저작권료는 필름값과는 별도로 초판 5천부까지는 정가의 6%, 5천부~1만부는 7%, 1만부 이상은 8%. 스페인어판이 현지 독자들로부터 예상외의 반응을 보이자 수세타출판사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및 캐나다 등지의 배포를 위한 프랑스어판 계약도 협상하고 나와 현재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또 독일어판 저작권 계약은 독일의 Druckerei und Verlag Bitsh GmbH사와 조만간 체결될 예정이며, 이스라엘의 SAAR-BOOK, 아랍 에미레이트의 에미겔출판사를 비롯, 중동국가의 출판사들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여러 나라의 출판사들도 자국내 발행 판매권 획득을 위해 금성출판사에 상담을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다. 이외에도 몰타공화국 등 몇몇 나라에서는 완제품의 수입을 원하고 있으며, 동구권국가인 체코와 불가리아에서도 '캠프 토이북'에 대한 저작권 획득을 타진해 오고 있다.

국내도서를 전문적으로 수출해온 한림출판사는 이동도서 수출 중수로도 대단히 많은 책을 수출하고 있다. 현재 홍콩 세사미출판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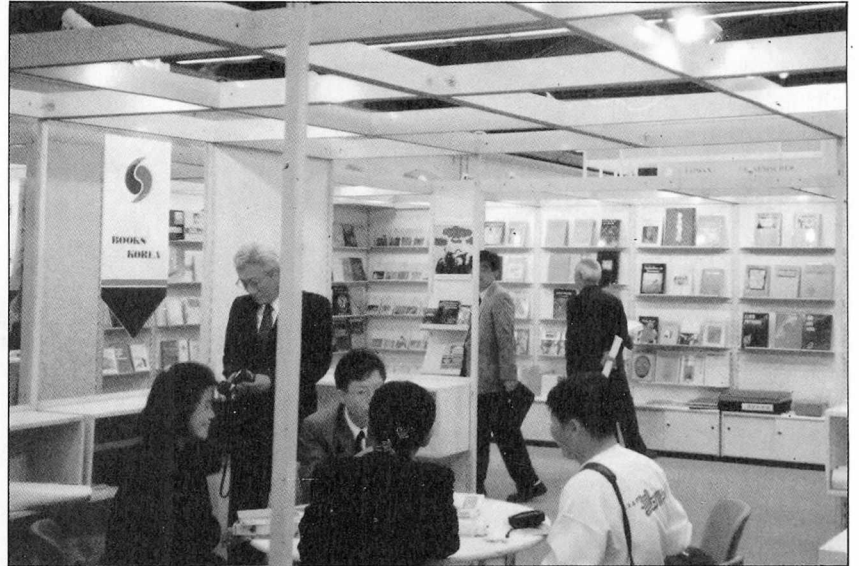
**최근 아동출판물의 국외 수출 상담이 부쩍 늘어나고 있어 아동출판물의 해외시장 개척에 청신호를 던져주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아동출판물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동시에 국내 출판계의 위상이 세계적인 추세에 돌입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수출되어 호평을 받고 있는 아동출판물의 현황을 살펴본다.**

저작권 및 필름을 수출하고 있는 책은 '엄마가 쓰고 그린 창작 그림책' 시리즈 중 '숲속의 생일잔치'와 '아빠가 쓰고 그린 생활 그림책' 시리즈 중 '딱따구리의 나무사랑'으로 중국어판은 이미 현지에서 출판되어 판매 중이며, 영문판은 제작중이라고 한다.

또 오스트리아의 출판사와 'Sun & Moon' '세계의 어린이 우리는 친구'도 지난해 볼로냐 국제 아동도서전에서 계약, 독일어판 1만부를 책으로 각각 출판 수출하고 있다. 이밖에 '자장자장 엄마 품에'와 강우현씨의 동화 '사막의 공룡'과 '봄을 찾아준 아기 원숭이'도 독일어판 수출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는 별도로 강우현씨의 동화는 현재 DRT 저작권 회사의 중개로 영어권 출판사와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교섭중이며, '자장자장 엄마 품에'는 일본의 출판사와 일어판 계약을 추진중이다.

'I Love Korea'은 노르웨이 입양기관에 노르웨이어판 저작권 및 책을 수출했으며 독일어판은 독일국적 교포교수에 의해 저작권계약 추진을 위한 번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한림출판사가 수출을 위해 교섭중인 어린이도서는 이외에도 '한국의 전래동화' 시리즈가 있는데 싱가포르의 출판사와 계약을 추진중이다.

디자인하우스는 '나무꾼과 호랑이 형님'을 지난해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 출품, 호평 받아 오스트리아의 HPT출판사와 독일어판 계약을 추진중인데 이 책은 한글과 영문이 병기되어 있어 영문 부분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중에 있다고 한다. 국민서관도 '지능개발 전집' 30권을 이스라엘의 자크 헤임사, 오스트리아의 브레이크 초프사와 상반기 안에 저



국제도서전에 꾸준히 참가한 출판사들의 아동출판물 수출상담이 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작권 계약을 성사시킨다는 방침이다.

### 동구권, 중국 등 시장 다변화

한편 계몽사와 예림당은 서구뿐만 아니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중국의 시장에 아동출판물을 수출하고 있어 중국 시장개척의 선두로 나서고 있다. 계몽사가 펴낸 '어린이 능력개발' '학습그림과학'은 중국의 요녕민족출판사와 중국어판 저작권계약을 맺어 현재 중국내에 시판되고 있는데, 판매가의 5%를 받기로 했다. 또한 일본의 출판사에 '그림 한국사'도 일본의 출판사에 초판 3천부 발간에 1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저작권을 수출, 현재 일본에서 시판되고 있다. 예림당은 중국의 흑룡강성 소재 조선민족출판사와 중국어판 도서를 출판한 상태에 있다. 지난해 북경도서전에 예림당이 참가하게 되면서 협상이 시작됐는데 예림당이 펴낸 '과학생활만화학습' 시리즈 10권에 대한 저작권료는 판매가의 6%를 받고 있다. 계몽사의 한 관계자는 "중국의 도서시장은 인구가 비례해서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다"고 하면서도 그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우 인건비를 비롯한 인쇄제본비 등이 우리나라보다 저렴하고, 환율 등으로 완제품을 수출할 경우 책의 단가가 높아져 당분간 완제품 수출은 힘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미국의 디즈니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디즈니도서를 출판하고 있는 지경사는 디즈니캐릭터를 이용, 독자적인 도서상품을 개발하여 대만 홍콩 등 아시아국 등에 수출을 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에 창간된 유아잡지 '디즈니

한국판'도 거의 100% 우리나라에서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중 30% 정도의 내용을 대만에서 창간된 디즈니 잡지에 실을 수 있도록 필름을 수출하기도 한다.

### 다양한 품목 개발로 활로 찾아야

이처럼 아동출판물 수출이 호기를 맞이하게 된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출판사의 관계자들은 세계저작권조약 가입 이전부터 꾸준히 노력해온 국제도서전 참가를 꼽고 있다. 즉 국제도서전이 외국의 도서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동시에 우리 출판물에 대한 홍보작업을 병행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수출 상담중이거나 수출된 대다수의 도서들이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이나,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북경도서전 등에 선을 보인 후 외국의 출판사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각 출판관계자들의 말에도 입증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일러스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동출판물부문의 특성에 따른 국내 일러스트의 질적 향상, 외국에 비해 저렴한 제작비, 아동출판물시장의 상대적인 침체로 국내 시장이 좁아지면서 각 출판사들이 외국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 등도 아동출판물 수출 급증의 한 요인으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올해 열린 볼로냐 도서전에 대만은 20여개사가 참가하고 중국은 특별원화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국 출판물을 홍보하고 그 기술이 날로 향상되고 있다"는 한림출판사 합기만 편집부장의 지적은 수출 노후 추적과 함께 이동도서의 다양한 품목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 이성수 기자